

慰勞

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病院 뒤스뜰 난간과 꽃
밭사이 사람발이 잘 다찌않는곳에 그물을 쳐놓
았다. 屋外療養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
치여다 보기 바르게——

나비가 한마리 꽃밭에 날어들다 그물에 걸리었
다. 노—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파득거려도 나비
는 작고 감기우기만한다.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
니 끝없는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
린다.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.

나(歲)보담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病을 얻
은 이 사나이를 慰勞할 말이—— 거미줄을 헝크러
버리는 것밖에 慰勞의 말이 없었다.

一九四〇、十二、三、

위 로

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뒷뜰 난간과 꽃밭
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
았다. 옥외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
다보기 바르게——

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리었
다. 노—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파득거려도 나비
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.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
니 끝없는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
버린다.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.

나이보담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
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—— 거미줄을 헝클어
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.

1940.12.3.